사가	보 도 자 료			수도권마	수도권매립지 종료	
竹州也上記刊	배포일자	2022년 5월 총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인천문화 부서 예술회관	담 당 자	•기획운영팀정 •담 당 자	》 이동선 ☎ 정수산나 1	420−2710 ☎ 420−2736		
사진(이미지)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	시 보도하여 결	주시기 바랍니	다.		

전쟁과 테러 없는 세상으로 다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합창음악

- 5.27 인천시립합창단 현대합창음악 〈다시 [RE:]〉 -

인천시립합창단이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현 시대를 아파하며, '다시'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인천시립합창단에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76회 정기연주회 〈다시 [RE:]〉를 통해 평화에 대한 염원을 노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곡가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를 비판하며 평화를 바라는 노래를 남겨왔으며 세계 곳곳에서 대립이 극에 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작곡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개성 있는 음악언어를 가진 우리 시대의 작곡가들의 곡들을 소개한다. 이번 연주회에서 가장 주목할 곡은 인천시립합창단 상임작곡가 조혜영의 창작곡 '애가(哀歌 , Lamentation)'이다.

故박영근 작곡가의 '6인의 연주자를 위한 애가'의 가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합창곡으로 서해바다에 아기를 수장시킨 엄마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혜영 작곡가는 "남·북 분단 후 북한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월남할 때,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의 표적이 되는 우는 아기를 밤바다에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팠던 과거를 기억하며 곡을 썼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립합창단은 스위스 작곡가 이보 안토니니의 'Canticum Novum', 필리핀 출신의 오르가니스 겸 작곡가인 알렉한드로 콘솔라시온 2세의 'Pater Noster(2014)', 네덜란드 출신의 남아공 작곡가 뢰로프 테밍의 'Himne'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현대합창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존 레논, 빌리 조엘 등의 팝 아티스트들이 국경을 넘어 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부른 'Imagine', 'Lullaby(Good Night, My Angel)'등을 합창으로 편곡해 노래한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를 연주할 때는 계양구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윤학원유스콰이어 부평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아이들을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곡의 의미를 더한다.

이 두 팀은 공연 전과 후, 로비에서 프린지 콘서트를 열어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종현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오랜 시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국 중심의 노선에 편승한 지도자들의 대립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요즘, 더 이상 죄 없이 희생되는 생명들이 없기를 바란다." 며 "우리가 부르는 노랫말처럼 지구촌 전 인류의모든 관계가 다시[RE:] 회복되기를 바란다." 고 연주 준비 소감을 말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76회 정기연주회 〈다시 [RE:]〉는 거리두기 없이 전 좌석을 예매 오픈하며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천원으로 감상이가능하다.

문의)인천시립합창단 032-420-2784

인천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음악 〈다시 [RE:]〉

□ 일 시 : 2022년 5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 관 람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시립합창단 032-420-2784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합창단

〈붙임〉관련 사진

〈붙임〉 공연 포스터 및 시립합창단 공연 사진



공연 포스터



인천시립합창단